

장성군, 귀농인-원주민 화합 '앞장'

따뜻한 마을만들기·찾아가는 융화교육... 내달 8일까지 마을 모집 영농정착·농가주택 수리비·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채

장성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장성군은 귀농·귀촌인이 마을 환경개선이나 체육활동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원주민과 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주민간 소통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내에 미니정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함께 환경개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2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선도마을 견학·체험 등을 위한 교육비·소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

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다음달 8일까지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마을 대표(이장)가 신청하면 된다. 귀농·귀촌인을 포함하는 마을이면 어디든 참여 가능하다.

군은 이 외에도 ▲영농정착지원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인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소통 강화해 주민이 융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마을의 성장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스몸비 족” 안전을 위해” 나주시, 바닥 신호등 설치 눈길

빛누리유치원 등 7곳

나주시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걷는 일명 '스몸비(Smombie)' 족의 보행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에도 큰 도움을 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빛누리유치원 등 관내 7개 횡단보도 대기선에 신호등 체계에 따라 보행신호가 점등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주시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걷는 일명 '스몸비 족'의 보행 안전을 위해 빛가람동 빛누리유치원 등 지역 7개 횡단보도 대기선에 바닥 신호등(점선 안)을 설치했다. (나주시 제공)

스몸비란 스마트폰(Smart 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몰두한 채 걷는 사람을 가리켜 생겨난 신조어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린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의 스몸비 현상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률이 급증함에 따라 고안된 신호안전체계다.

횡단보도 대기선과 인도 경계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로 빨강·녹색 보행신호를 점등해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간시간대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보행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

다.

나주시 관계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전방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률이 높아 나주경찰서와 사고위험지점 조사를 통해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했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사고 인지력 향상에 따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논·밭두렁 소각 안하면 인센티브”

화순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마을 캠페인' ... 26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영농철을 맞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마을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늘어나면서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논·밭두렁과 농업 부산물, 농

산 폐기물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화순군은 마을 주민 전체 사전 동의로 마을 단위 서약서를 받는 등 '소각 산불 없는 마을 캠페인'을 펼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

입팀에 오는 26일까지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전국 30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22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봄철 산불조심 기간)까지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안 하기 농업 부산물, 기타 생활 쓰레기 등 소각 안 하기 공동 소각 안 하기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1~2월 중 시행)을 앞두고 불법 소각 등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공예왕국 나주’ 명성 되찾는다

나주천연염색재단, 공예제작소 설립 110주년 공예 기술·마케팅 지원

(재)나주시천연염색 문화재단이 1900년대 초 호남지역 유일의 공예품제작소가 위치했던 공예왕국 나주의 명성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나주공예품제작소 설립 110년을 맞아 전라도 공예 부흥을 위한 나주로컬크래프트(지역공예품) 홍보 및 판매, 지역 공방



전남공예창작센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목공예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작가 소개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단은 전남공예창작센터 유치로 인해 목공예, 섬유공예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30여회에 걸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최, 작가 창작비, 컨설팅, 전시판매전 등을 지원하며 나주 공예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재단은 올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지원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30여회의 교육, 판매 촉진전, 마케팅 교육, 공예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공예인을 강사로 초청, 초·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예'를 주제로 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나주공예품의 역사는 약 2000년 전 고대 마한의 무덤 양식인 고분에서 발견된 대형 옹관, 금동관, 금동신발 등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제일의 '나주부채'는 대영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 프랑스 부채박물관 등에 소장돼있

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1930년대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전라도 공예를 둘러보고 쓴 '전라기행'(全羅紀行)에서 남국의 공예왕국의 핵심 지역으로 나주를 꼽았다.

나주는 1913년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나주공예품제작소가 설립돼 공예품 기술 개발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나주 공예는 산업화 흐름 속에 침체기를 겪으며 오늘날 나주반, 쪽염색, 셋골나이 등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김왕식 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공예 장비 시설 구축, 나주 로컬크래프트 운영,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 개발, 공예 간 융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나주 공예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 나주 공예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공예인들의 직업 활동 기회를 제공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함평군 농촌유휴시설 창업공간으로 거듭난다

정부 공모 선정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창고, 건물 등 지자체 소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또는 주민 문화복지를 위한 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2004년 건립돼 노후화로 현재 사용이 중지된 함평읍 석성리 '해안민박'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카페, 농·특산물판매장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주체 모집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해안민박'은 돌머리 해변과



함평읍 석성리 유휴시설인 '해안민박' 전경.

주포한옥마을 등 함평의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잠재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